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20 백운 화상 어록



▶ 한줄 요약
부질없이 도 찾지 말고 그저 행하라.

생각만으로 깨달음 이르기 어렵다





백운화상(白雲和尙, 1299~1374)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심경', 또는 '직지')의 지은이다. 이름은 경한(景閑)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일정한 스승이 없이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다니며 40여 년 동안 수행하다가 1351년 중국으로 건너가 석옥(石屋) 선사로부터 임제종 선법을 전수받았다. 본 소개 책자보다 앞서 1990년대에 〈백운 스님 어록〉(민족사 발행)을 펴낸 무비(無比) 스님은 해제(解題)를 통해 이렇게 극찬하였다.

"백운 스님 말씀은 마디마디마다 자유를 향해 치닫는 원둥치가 본디 비어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이 텅 빈 원둥치와 맞서는 온갖 시간과 공간 또한 한갓 거울 속의 있음임을 가르친다. 그러나 저 비어 있음과, 거울 속의 있음은 있음을 떠난 있음이 아니니, 백운 앞에 펼쳐지는 끝없는 있음의 바다는 비어 있음의 눈부신 꽃이며 있음의 묘한 웃음이 된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2500여 년 전의 어느 날 아침, 설법을 듣고자 모여든 청중을 앞에 둔 채 부처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부처님의 침묵이 이어지자, 실내는 고요가 무르익어 터지기 직전이었다.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별난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듯 뜸을 들이실까?"

모두가 긴장하여 현이 끊어지기 직전의 현악기 같은 표정들이었다. 좌중을 주욱 둘러보고 난 부처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꽃 한 송이를 쳐들어 보인다.

여느 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그날,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쳐들어 보임으로써 설법을 기다리는 대중들에게, 그리고 세세생생 그날의 소식을 들을 미래의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말없는 말'은 그 내용물이 무엇이었을까? 연꽃 한 송이를 보고 뭇 대중들 가운데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던 가섭 존자가 연꽃 너머에서 보고 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가섭 존자의 눈과 부처님의 눈을 잇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는 어떤 소식을 담은 전파가 흐르고 있었을까?

부처님의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 이것은 비단 2500년 전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방팔방에서 들어 보이고 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다. 오직 가섭만이 부처님과 눈을 마주쳐 가며 불꽃의 축제를 벌였듯이, 우리 중에도 눈이 열린 자만이 불꽃놀이를 목하 즐기고 있는 중이다.

수많은 역대 조사님들과 선지식들이 이 불꽃놀이를 즐겼고, 어떻게 해야 이 불꽃놀이 속으로 들어가 모든 번뇌를 태워버릴 것인지 그 방편을 가리켜 보였다. 고려 말의 고승 백운 경한 또한 그 불꽃놀이를 맛보고는, 그 요체를 가리켜 보이기 위해 남은 생애를 바쳤다.

"하늘과 땅, 이 우주 사이에 한 물건이 있습니다. 참되고 조촐하고 밝고 묘하며, 텅 비고 확 트이고 신령하고 막힘없고, 우뚝하고 훤출하여 스스로 드높은 그런 물건입니다. 온갖 덕을 다 거느렸건만 그 모습이 없고, 온갖 어둠 다 녹이시니 그 공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위 없는 위이고, 밑 없는 밑이며, 밖이 없는 밖이고, 알맹이 없는 알맹이입니다. 어디에도 알맹이가 없으니 어떻게 동쪽, 서쪽, 또는 위아래가 있겠습니까? 이 물건은 깨달아도 이와 같고 깨닫지 못해도 이와 같으며, 높다고 해도 이와 같고 낮다고 해도 이와 같으며, 그렇다고 해도 이와 같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옛 어른 말씀에 '이 끝없는 천지 가운데 오직 나 하나뿐이다. 이것이 추우면 온 천지가 춥고 이것이 더우면 온 천지가 덥고, 이것이 있으면 온 천지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온 천지가 없다. 위로는 하늘과 통하고 아래로는 저 황천에 사무쳐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물건이기에 이렇듯 기특하단 말입니까?"

이 '한 물건'을 깨달은 사람은 '터럭 한 오라기가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한 알이 수미산을 온통 받아들이는' 이치를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어처구니가 눈앞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어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일'과 같이 다반사가 된다.

> **삼매 들어도, 업 닦아야**
> **인과의 올가미 벗어나는**
> **교화 행이 더욱 중요해**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가르치신 묘한 이치는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봄이 오면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시냇물이 쪽빛보다 푸르러지는 것도 '한 물건'이 자기를 펼쳐 보이는 일이고, 꾀꼬리가 벗을 불러 노래하고 제비가 둥지를 찾아 날아다니는 것도 '한 물건'이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다. 모든 것 속에 절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 속에 다 드러나 있으니, 다시 더 무슨 말을 더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물건'은 한시도 쉬지 않고 '태평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눈이 있는 이는 다 볼 수 있고, 귀가 있는 이는 다 들을 수 있다.

"불법의 지극한 이치는 저 허공처럼 둥글고 너그러워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습니다. 또한 본디 다 이루어져 있어 모든 것에 나타나고 물건마다 온전히 드러나 있으니, 마치 저 푸른 산 맑은 물, 또는 밝은 달 맑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우는 새며 푸른 물 위로 펄펄 뛰는 물고기며 뫼와 물과 땅 그리고 풀과 나무들의 가늘고 굵고 길고 짧은 저 숱한 모습들은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것도 모르고 쓸데없이 의심을 내어 이 늙은이에게서 진리로 들어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까?"

생각으로는 진리와 계합할 수 없다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적이요 신비이며,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찾는 그 '한 물건'인데 어디에 가서 부질없이 도를 찾는단 말인가? 진리란 언제나 눈앞에 있지만, 보면서도 자기가 쓰고 있는 개성의 안경에 비친 색깔을 주장하면 천리 만 리 어긋나버린다. '보면서도 보지 않아야' 그것을 '기특한 봄'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와 계합하기 위해서는, '말부스러기나 쫓아 다녀서는 안 된다. 어지러운 말의 숲을 시원스럽게 뚫고 나가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깨칠 수 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머리로 도를 배우고 깨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도모하는 일이다. 널리 배우고 많이 주워들은 것으로 이야깃거리를 삼는 것은, 누에가 고치를 만들어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과 같다. 팔만대장경은 물론이고 수많은 조사 스님네들과 선지식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가 다 방편일 뿐이니, '그물이나 통발을 던져버리지 못하여 흙덩어리를 쫓는 어리석은 개꼴'이 되지 말아야 한다.

"옛 어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진리와 이 마음이 무엇이 다르기에 어찌 수고로이 경전의 뜻을 찾는가? 본디 마음은 스스로 알음알이를 끊어버렸으니 지혜로운 이는 다만 배울 것 없는 이 자리에 환히 밝다.' 그러기에 여러 형제들에게는 경전의 가르침도 쓸모없고, 수행하고 예배함도 쓸모없으며, 몸을 태우고 뼈를 달구는 고행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지난날과 지금과 앞날의 모든 부처님과 팔만대장경의 뜻을 다 알아 높은 법상에 걸터앉아서 폭포수 같은 말을 쏟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묘한 진리를 갖추어 말하되, 구름이 일고 비가 쏟아지듯 하여 감동한 하늘꽃이 떨어져 땅이 황금이 되고 바위들이 모두 머리를 끄덕거려도, 또한 수많은 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안다고 해도, 그것은 한생각이나마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업을 닦는 것만 못합니다."

총명하다고 해서 업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음알이를 통한 지혜로는 나고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깨달음은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서 존재 전체로 체득되지 않고서는 '인과의 올가미'를 벗어날 길이 요원하다.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

백운 스님은, 깨달음의 공부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지만, 반드시 화두를 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을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도인을 찾아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끄러움을 떠나 고요함 속에서 지내는 것도 반드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누더기옷을 입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살면서 하루 한 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 된 사람'으로 여기는 자칭 도인들이라도, 번뇌가 다하지 못하고 이치와 지혜를 밝히지 못한다면 부질없이 늙어버릴 것이다. 이런 식의 모든 진리 추구는 '작대기를 높이 들어올려 달을 따려는' 것과도 같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나고 죽는 큰일'에 대한 의문부호를 마음 가득 품는 일이다.

"하루 스물네 시간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나고 죽는 큰일을 생각하되, 온갖 의식 활동을 떠나 범인과 성인의 길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씀이 없음과 함이 없음을 배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길러 한결같이 무념이 되고 한결같이 어둡지 않아 마침내 온갖 기댈 곳이 다 사라지고 깊고 깊은 곳에 이르면, 저절로 진리와 한몸이 될 것입니다."

바깥으로 쫓지 말고 마음의 빛을 안으로 비추어 '저 바탕을 깨달을 뿐 부디 끄트머리를 쫓지' 말아야 한다. '그 바탕만 얻으면 그 끄트머리는 저절로 온다.' 끄트머리가 무엇인가? 중생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살림살이이다. 세상 살림은 끄트머리에 불과할 뿐 중심이 아닌 것이니, 오직 중심만을, 바탕만을 찾으려고 애쓸 일이다.

"지극한 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고 넓고 텅 비고 묘하고 순수하고 빛나고 신령하게 밝아 말로 형용해 설명할 수 없고 알음알이로도 미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밝게 통달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으로, 교화를 돕게 되는 것이지요."

〈작가〉

